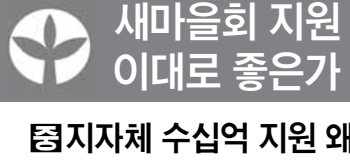


# 광주·전남 회원만 20만명...단체장 표 의식 눈치보기



### 시민 혈세로 회관 짓고 회원 잔치해도 예산 감시 나몰라라 지방의회도 뒷짐만...시민단체 '집행 내역 제대로 뜯어봐야'

광주·전남 새마을회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새마을회 회관 건물을 시민 예산을 들여 건립한 뒤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광주시 서구와 북구에 버젓이 요구(광주일보 2016년 10월 17일자 6면)하고 매년 3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지원받아 회원 자녀 장학금과 조직 운영비, 새마을회 자체 행사에 전체 예산의 70%를 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새마을운동이 태동한 영남지역이 아닌 5·18의 고장이자 아성이 강한 광주·전남에서도 '유신시대의 잔재'로 치부되기는 커녕 위세를 떨치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궁금증이 있다.

1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새마을회가 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배경은 회원 규모와 조직력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부 성격인 광주시 새마을회, 전남도새마을회 회원 수는 각각 1만9800명, 17만2000명이다. 합쳐서 20만명에 육박하는 단일 단체로서 최대 규모다. 시·도 새마을 산하에 시·군·구 새마을회가 조직된 점도 새마을회의 강점이다. 새마을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조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수십억원대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마을회와 맞서다간 표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들이 쫓겨나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예산을 편성하는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뿐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주된 임무인 지방의회조차 새마을회 예산 지원 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을 품고서도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꺼린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광주 시민단체 반발 여론에 밀려 예산 지원이 유보됐으나 지난해 말 새마을회(광주 서구·북구) 측이 "비용 일부를 델테니 예산(5억원)을 들여 회관을 건립한 뒤 소유권을 넘겨달라, 새마을회 부지를 제공해달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새마을회 회관 건립 예산 편성과 관련, "향후 선출직 공무원들 염두에 둔 일부 시청 간부공무원, 시의원은 새마을회 측을

청을 받고 앞장서 예산 편성을 돕고 예산 안 통과에 힘을 썼다", "시민 혈세로 회관까지 지어주는 것은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의원들 모두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지역 기초의원 A씨는 "새마을회 예산 지원 규모와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들 상당수가 비판적이지만 새마을회 회원 수와 표를 생각하면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지역 새마을회가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 회원 장학금과 운영비, 새마을회 자체 행사에 평평 쓰는 등 회원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데도 비판은커녕 공직자 모두가 절절대는 형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감시받지 않은 유신시대 잔재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예산과 집행 내역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뜯어봐야 한다"면서 "혈세를 평평 쓰는 새마을회 집행부,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그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회 측은 "타 단체와 비교해 형평성·특혜성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은 제기될 수 있으나 모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이다. 회원 봉사활동을 포함한 새마을회의 긍정적 역할도 지역 사회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3조)과 조례(광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규칙)를 지원 근거로 내세우며, 길게는 30여년간 매년 3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역 새마을회에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광주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새마을회 측이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회원 자녀 장학금, 조직 운영비, 새마을회 자체 행사에 써온 사실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남친과 잤냐” 성희롱 교수 방학기간에 3개월 징적 “뵈주기 징계” 강력 반발

“남친과 잤냐” 등 제자들 앞에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광주여대 교수의 3개월 징적 처분을 놓고 “뵈주기 징계”라며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광주여성인우회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여대 A(59) 교수에 대해 광주여대는 지난해 12월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징적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이날 광주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뒤복 징계인데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23일 수업 중에 여제자를 앞에서 “남자는 서서 조준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나”, “남친과 잤냐”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A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제자들이 녹취해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 측은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2016년 12월27일에야 내렸다. 특히 학교 측은 “징적 3개월”을 처분했는데, 공교롭게도 겨울방학기간에 해당했다. 일각에서는 A교수가 주요보직을 지낸 인물이라서 학교 측이 1년여를 끌다 겨울방학기간에 맞춰 징계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여대 관계자는 “갑사 결과를 토대로 징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기간이 3월까지여서 사실상 올해 1학기 수업까지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구례군·곡성군, 새마을회관 건립 수억씩 지원했다

광주시도 10여년 전 광주시 새마을회 회관으로 쓰려고 건물을 매입할 당시 시민 혈세 5억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북구가 추진한 북구새마을회 건립 사업에 광주시는 시예산 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초 시민 반대 여론에 밀려 예산 지원 중단을 발표하 바 되었다. 새마을회 건립 예산 지원과 관련해 특혜 시비와 함께 불법 논란이 제기됐으나 전남도와 구례군, 곡성군은 지자체별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새마을회관 건립에 일조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14일 광주시새마을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2년 광주시새마을회 측이 남구에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회관으로 쓰려고 하니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34억원짜리 건물 매입 과정에 광주시 예산 5억원이 투입됐고 나머지는 새마을회 중앙회, 광주시새마을회가 부담했다는

계 새마을회 측 설명이다. 전남도와 고흥군도 고흥새마을회 회관 신축비용은 물론 2차례 증축 과정에도 역대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 2007년 회관 신축비용과 2012년, 2014년 회관 증축비용에 전남도 예산 1억2000만원, 고흥군 예산 5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고흥새마을회는 회관 신축과 증축에 2억원을 자부담했다. 구례군도 전남도 예산 5000만원을 포함 총 3억5000만원의 예산을 구례군 새마을회 회관 건립에 지원했다. 새마을회 측 자부담은 1억원이었다. 전남도는 지난 2002년 전남도 새마을회 회관 건립에 예산 일부 별도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그러나 문서보존 연한이 지나 구체적 예산 지원 규모가 적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하고 건물 소유권을 새마을회에 이전하는 문제는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자치단체 내부

에서 제기된 바 있다. 광주시 서구가 서구 새마을회 측 요구를 받고 지난해 새마을회 회관 건립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시행령을 고려하면, 회관 완공 후 소유권을 새마을회에 넘기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공무원들의 판단이 나오면서 서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는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고 규정했다. 시민 예산을 들여 마련한 회관 건물의 소유권을 광주시·전남도 새마을회, 시군구 새마을회 등 지역새마을회에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크다는 게 당시 공무원들 판단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청사에 게양된 새마을기를 철거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유신 잔재”라며 새마을기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광주시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15일까지 모두 새마을기를 철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구청·의회서 새마을기 사라졌다

### 북구청·서구의회도 철거...동구의회는 오늘 내리기로

광주 북구청과 서구의회가 14일 새마을기를 철거했다. 동구의회는 15일 철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주시와 5개 구청, 광역·기초 의회의 청사 게양대에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광주시 북구는 14일 오후 6시 청사 국기 게양대에 걸린 새마을기를 내렸다. 동주민센터 26곳에 내걸린 새마을기도 철거했다. 서구의회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날부터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동구의회는 15일 오전 내릴 방침이다.

광주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잇따른 새마을기 철거는 광주일보의 “혈세 투입 새마을회관 거립 특혜 시비” 보도에서 비롯됐다. 서구·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에 시비와 구비 20억원 지원해 지은 뒤 소유권을 새마을회에 넘겨준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새마을운동회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유령”이라며 예산 지원 철거를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부 신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 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대학원 신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22(수) 오전 10시~18시
		신학과(Th.M.)	○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22(수) 오전 10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전 형 일 : 2.22(수) 오전 10시~18시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